

“검찰 개혁” vs “조국 파면” 세대결 양상

보수진영, 서초동 촛불집회에 맞불... 광화문 총집결 광화문 광장~서울역 2.1km 차량 통제...인파로 메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천절인 3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같은 시간 각각 집회를 개최했으나, 광화문 앞에서부터 서울시청을 지나 서울역까지 왕복 10차선 도로를 가득 메운 인파는 ‘조국 파면’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은 집회 참석 인원을 300만명 이상으로, 문재인이 야법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는 200만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광화문 집회 이후 최대 인파가 몰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집회는 지난날 2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자극을 받은 보수 진영이 총결집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주말인 오는 5일 서초동에서 2차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릴 것으로 예상돼 ‘검찰개혁’ 대 ‘조국 파면’ 양 진영 간 대결은 더욱 확

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헌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각 지역의 당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황 대표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정을 파탄 내고 안보도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이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며 “(조국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단군 이래 최악의 정권”이라며 “지난번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보셨느냐. 그들이 200만이면 우리 오늘 2천만이 왔겠다”고 말했다.

‘조국 파면’을 주장하며 19일간 이어온 단식투쟁을 이날 중단한 이학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며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쓰레기 같은 패거리들

을 쓸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집회 참가자들은 ‘지키자 자유대한민국’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조국을 구속하라’, ‘조국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일부는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다.

같은 시간 교보빌딩 앞에서는 전광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총괄 대표,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총괄 본부장을 맡은 문재인이 야법국민투쟁본부가 ‘문재인 하야 광화문 100만 투쟁대회’를 열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 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박 전 대통령의 실수도 있었지만, 보수우파 진영 내의 분열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탄핵을 사이에 두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할 시간도, 그럴 겨를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며 자체적으로 작성한 ‘국민탄핵 결정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이 아니라 조직폭력 집단 같은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좌파 집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인

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 우리공화당은 낮 12시 30분부터 송레문 앞에서 ‘문재인 퇴진 태극기 집회’를, 전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정오부터 서울광장 서면에서 전국기독교연합 기도대회를 열었다. 이 밖에도 일파만파에국자연합(일파만파)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로 광화문 남쪽광장부터 서울역 4번 출구 앞까지 세종대로 2.1km 구간 10차선 도로의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대부분 구간이 집회 참가자 등으로 가득 찼다. 또 종각역에서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8차로도 차량이 통제됐고, 종각역에서 내려 광화문 사거리 쪽으로 이동하는 인파로 채워졌다. 집회에서는 보수 정당의 당원이나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대거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면서도 침묵해온 이들의 민심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집회에는 조 장관 자녀의 특혜 입시 의혹에 분노한 젊은 층도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與 “태풍 피해 지역 특교세 신속 지원”

울진 등 피해 심각한 곳 재난지역 선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키로 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결정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선 민주당은 피해지역 응급복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신속히 지원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경북 울진을 포함해 피해가 심한 지역까지 8차로도 차량이 통제됐고, 종각역에서 내려 광화문 사거리 쪽으로 이동하는 인파로 채워졌다. 집회에서는 보수 정당의 당원이나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대거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면서도 침묵해온 이들의 민심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집회에는 조 장관 자녀의 특혜 입시 의혹에 분노한 젊은 층도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각별한 대책이 나올 수 있게 진행해야 된다고 이 대표가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한 사유시설 복구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행안부에 당부했다.

긴급복구뿐 아니라 ‘항구적 복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자연재해가 피해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며 “예산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한국당의 역량은 광화문 광장이 아닌 태풍 피해 현장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피해 상황과 관련해 긴급 당 대표 주재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감 브리핑

윤영일 “공공임대 안전·소방 대책 절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당, 해남·완도·진도)은 3일 “공공임대주택 내 안전사고 중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소방훈련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임대주택 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총 62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화재 317건(51%), 재해 137건(22%), 전기통신 64건(10%), 기계가스 58건(9%), 승강기 7건(1%) 순이다.

이 기간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234명이 발생했다. 사망 25명에 경상 170명, 중상 39명이었다. 사망자 25명 가운데 21명은 화재로 숨졌다. 윤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은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의 날로 지정했지만, 입주주민과 직원에게 교육만 진행할 뿐 사실상 실용성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면서 “화재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손금주 “중 어선 불법 조업 처벌 강화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소속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은 3일 “해양경찰의 단속에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96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조업 중 적발된 중국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 제한조건 위반 등이 741건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이어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 조업이 170



건(17.5%), 영해침범 58건(6%) 순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 선원 270명이 구속됐고, 592억85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 8명이 다쳤고, 경비정 2척이 침몰 또는 전복되는 등 해경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수산자원 남획을 막고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

한국당 빠진 개천절 경축식...여야 “홍익인간 정신 새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천절인 3일 “서로 관용해야 한다”며 “모든 영역에서 대립의 뿌리를 뽑고 화합하자”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1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단군께서 주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과 ‘이화세계’ (세상을 이치로 다스림)의 꿈은 결코 오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발전, 민주, 포용, 화합, 평화 등을 5대 당면 과제로 꼽았다.

이 총리는 먼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발전을 달성했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경제·문화·정치적으로 더 발전해 후손과 세계 인류를 더 널리 이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했지만 도전이 만만치 않다”며 “모든 영역에서 민주와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이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사회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포용국가’를 구현해 가야 한다”며 “약자를 더 보호하고 안전망을 더 확충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개천절을 맞아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을 새기자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현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 야당들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개천



이낙연 총리와 여야 4당 대표 등이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모두가 함께, 세상을 이롭게’란 주제로 열린 단기 4352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개천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절 경축식 불참과 서울 도심 장외집회 계획이 개천절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홍익인간 정신 구현이 멀어지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혜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하나 돼야 할 개천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예고된 분열과 갈등은 연변한 역사의

가르침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오늘만큼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단군의 정신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 오현주 대변인은 “개천절 경축식 표어인 ‘모두가 함께, 세상을 이롭게’는 정치권이 되새겨야 할 말”이라고 밝혔으며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며, 민생이 우선인 정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최악의 경제로 중산층은 무너졌고, 국방부는 북한 도발을 옹호하고, 대통령은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비호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유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립니다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의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 230-7700-2 (010-5613-1808)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립니다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